

# 문화원형은 상상력, 창의력



우리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공모

확정 사업 11개중 불교 주제 2개

## ■ 감로탕화

### 디지털 가공하여 게임으로

한서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연구센터(주임교수 김운)는 예술품보존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불화 가운데 '지옥도'로 불리는 감로탕화 속에 나타난 인물, 불구 등을 게임 제작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한다. 애니메이션영상연구센터는 디지털 가공품을, 예술품보존관리연구소는 문화원형의 고증을 맡게 된다.

감로탕화란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영가천도(靈駕薦度) 때 봉안하는 불화로 조선시대에 성행했다. 감로탕화는 상중하단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은 주로 불보살

이 배치된 극락, 중단은 재단에서 재의식을 펼치는 승려와 상주, 왕후 장상이 형상화 되어있고 하단은 아귀와 운감 망령들이 사는 지옥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민중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어 독창적 문화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임 제작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한서대 팀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감로탕화 50여점을 모두 실사 및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디지털로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인물, 동물, 소품, 문양, 아바타 소재, 이야기를 추출해 2D 이미지 제작, 3D 게임용 모델 개발 등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을 할 방침이다.

### 조선시대 50여 작품 촬영, 복원 콘텐츠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최근 2003년 제1차 '우리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 자유공모'를 실시, 사업자를 확정하고 11일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은 우리의 전통과 역사속에 녹아있는 문화원형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프로젝트 가운데 불교를 주제로 한 것은 두개다.

## ■ 한국미술에 나타난

### 길상이미지 개발

불구인 목어, 운판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을까? 또한 불화 속에 나타난 연꽃, 용, 호랑이 등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골든벨 애니메이션(대표이사 황지현)은 이같이 우리 문화 원형 속에 특정한 의미를 갖는 길상 이미지들을 찾아내고 이를 이모티콘, 아바타,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소재를 개발한다.

길상 이미지란 행복을 추구하고 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상징체계로 민화나 민간신앙과 결부된 산신도

용호도 등 불화 속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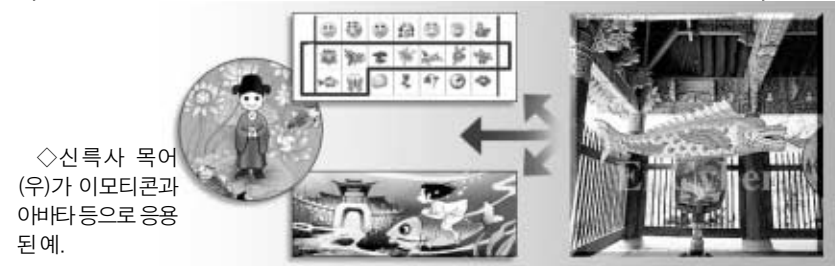
골든벨 애니메이션은 이같은 길상 이미지를 찾기 위해 허균 前 정신문화연구원, 정병모 경주대 교수와 함께 통도사 금강계단 석등, 범어사 대웅전 불단의 연꽃, 은해사 백홍암 수미단, 경북공 등을 직접 방문, 상징체계를 수집해 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명구 동아방송대 교수, 임영규 세종대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감로탕화(좌)를 게임용으로 응용한 지옥 모습.



◇신록사 목어(우)가 이모티콘과 아바타 등으로 응용된 예.

##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샌프란시스코 선센터(<http://www.sfzc.com/index.html>)는 1962년 스즈키 로시와 그 제자에 의해 설립된 곳이다. 이 곳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일본계 불교단체의 하나이다.

선센터에서는 참선을 통한 수행만을 명제로 삼지 않는다. 선센터는 대사회 활동으로 노숙자를 위한 음식 나누

## 샌프란시스코 선센터

(<http://www.sfzc.com/index.html>)

### 수행 이상의 대사회활동으로 운영 뉴스 통해 이슈, 수행자 탐방 등 전해

기, 홀리스 아이들과 가족과의 활동, 재소자와 함께하는 명상 트레이닝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웹에서는 사이트맵, 손내밀기 프로그램, 다라마의 색깔, 관련 사이트 링크, 윤리학 진술, 도서, 특별 이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상가뉴스를 통해 다양한 불교계 이슈와 선센터 소식, 참선 수행자 탐방 등을 전한다.

캘린더를 통해 선센터의 행사일정을 세세히 둘러볼 수도 있다. 선센터와 녹색 농장 등 선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기 쉽도록 연락처와 참가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 개시된 연보기

○수많은 약속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이왕이면 아름다운 약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진취적이고 밝은 약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은 아마도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talentos를 보람되게 활용하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정근, 다음카페 인연

○이것 저것에 이끌리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바른 길을 가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끝없는 방랑길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하는 인생 더는 헤매지 말고 '참 나'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바라며 부처님 품안에서 뜻하는 바 이루소서.

혜진(보리), 다음카페 연꽃향기마을

○만일 우리가 '참 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윤회(輪廻)와 업(業)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 최후의 유훈에 따라 게으름없이 정진 합시다.

맑은영호, 불꽃사계산

## 충남 아산 보문사 ([www.bomoonsa.net](http://www.bomoonsa.net))



◇보문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충남 아산에 위치한 보문사는 송암스님이 서울 봉은사 조실 석주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1997년 중창불사를 시작해 지금은 대웅전, 관음전, 노인복지관을 갖춘 수행과 기도, 복지 도량이다.

그러나 보문사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사찰이기를 당당히 거부한다. 중창불사와 함께 인터넷을 매개로한 가상 공간에 사이버 보문사([www.bomoonsa.net](http://www.bomoonsa.net))를 개설, 세계인에게 사찰의 일주문을

매진했던 송암스님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소개되기 전 이미 미국에서 인터넷을 접했고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보문사에 머물면서 오프라인 불사와 병행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아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동부서주 불교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송암스님은 앞으로 사암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아산불교대학을 모태로 사이버 아산불

## 사찰 전경 동영상 촬영, 네티즌에 소개 사이버 대학 설립 계획 등 포교에 매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많은 불교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보문사 홈페이지는 보문복지관 소개, 주지스님 법문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문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네티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석주스님과 만스님의 작품 54점도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보문사가 사이버 공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버 포교에 나선 것은 주지 송암스님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다. 15년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포교에

교대학을 설립하고, 사암연합회 활동 및 참관단 공역 등 아산지역 불교소식도 사이버 공간을 마련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보문사는 사찰 중무 전산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5년 사찰 중무관리프로그램인 금강장사를 구입해 신도관리에서 재무관리까지 사찰의 전반적인 중무를 전산화했다. 정보소양이 부족한 노 보살님들이 많아 아직까지 중무소에 신도카드를 비치하고 있지만 이 모든 자료가 이미 DB화 되어 있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제는 본래는 연내 자료를 보냅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명랑동 45번지** 당산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추천제품

지혜, 희망, 행복을 그대에게.....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지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성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디스킨다고 하였습니다.

행운의 부적양말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복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개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함

www.bujukshop.com

천통정사 복지원 문의: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점 053)986-1354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념사자 (철보)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불교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